

2025. 03. 06.[목]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김현국 국장 010-2581-2487

〈 파산자도 취업 가능해야.. 취업제한 폐지를 위한 여가위 소관 5개 법률 개정안 전체회의 통과 〉

- 을지로쏘, 파산선고로 인해 287개 직업을 잃게 되는 경제적 약자들의 재기를 위해 13개 상임위원회 245개 ‘파산자 취업제한 폐지법’ 발의
- 6일 오전 여가위 소관 5개 법률안 전체회의 통과
- 을지로쏘, 경제적 약자의 재기 촉진을 위해 245개 법안 신속 개정 추진할 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가 추진하는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 중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6일 오전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을 선고받은 국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5개 법률에서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가로막혀 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겠다는 파산·회생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도 충돌하여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해외에서도 채용 결격 사유에서 파산 선고를 제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한국이 파산자의 취업 제한 제도를 본떠왔던 일본에선 현재 대부분의 결격조항이 폐지됐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파산자에 대한 고용상 차별대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파산자의 취업·자격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9월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13개 상임위원회 소속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 245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오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파산자들이 5개의 직업·자격 제한에서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아이돌봄 지원법」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대표발의한 김남희 의원은 “파산 자체를 불성실과 부도덕의 징표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파산선고 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 경제적 재기 및 사회 복귀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타 상임위 소관 법률안은 아직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라 지적하며, “경제적 약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계류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